

금년도 북한의 도시정비 및 주택건설 동향

1. 개요

- 북한은 올해 '사회주의 선경(仙境)' 건설 구호 아래 평양과 도·시·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보수·정비사업을 전개하고 있음.
 - 주택과 건물의 신축 및 개·보수, 도로정비를 통해 현대적·문화적 도시로 단장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주목됨.
 - ※ '84.4 이래 20년만에 전국건설자대회(4.28, 인민문화궁전)를 개최하여 건설부문에서 당 정책을 관철하는데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것을 결의

2. 금년도 실적

□ 금년도 도시정비 실적

- '01년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 각지에서 주택과 공공건물의 보수·재건축, 도로포장, 상·하수도과 난방관 교체 등의 정비사업에 주력하고 있음.
- 평양시는 [평양시 현대화 계획]('02~'04)에 따라 도심에 있는 주택, 공공건물, 시설물부터 정비한 후 점차 외곽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음.
 - 건물외벽 및 베란다 장식, 컬러 보도블록·가로등·전등장치 등을 설치,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구현을 추진하고 있음.
 - ※ 김정일 위원장은 '01년 초 '빠른 시일내 평양에 수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지시'(01.2.28, 노동신문)한데 이어, 작년 9월 '21세기 선군시대에 걸맞도록 새로운 평양을 건설하라'고 지시, 수도건설위원회의 주도하에 평양 도시정비사업이 진행중

- 신의주, 사리원, 원산, 삼지연 등 주요도시도 주거환경과 가로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한편,
 - 북한 전역에 지방 도시계획설계에 기초해 현대적 시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음.
 - ※ 평양 통일거리시장을 본보기로 하여 각 시·군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1개 이상씩, 약 300여개의 종합시장을 건설(조선신보, 10.21)

□ 금년도 주택건설 실적

- [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](3~4월) 및 [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](10~11월) 기간중 북한 전역에서 낡은 주택을 집중 보수하고, 2만5천여 세대의 주택을 새로 건설한 것으로 추정됨.
- 서부 평야지대에서는 주로 평양과 주변지역에서, 동부 산간지대에서는 자강도·함경남도에서 활발하였음.

지 역	보 도 내 용
평양시	태양열난방살림집 건설, 승리거리 8,000여세대 정비 등
개성시	130여세대 등
남포시	와우도지구 문화주택 200여세대 등
황남도	안악군 1,700여세대 등
황북도	황주군 40여세대 선군마을 등 2천여세대
평남도	금성간석지 300세대 등
평북도	룡천 1,650세대, 최근 연간 3,000세대 등
양강도	삼지연군 500여세대 등
자강도	위원군 1,500여세대 등
강원도	판교군 500여세대 등
함남도	1천 수백세대 등
함북도	청진시 1,700여세대 등

3. 특 징

□ 도시미관 및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에 중점

- 건물·거리의 외적측면을 중시하며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를 추구하여
 - 벽면 장식, 컬러 보도블럭 사용, 진열장, 전등장치 등 외관과 미적측면을 강조하고 있음.
- 주민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바,
 - 베란다 및 화장실 정비,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설치, 자전거 도로, 탁아소, 놀이터 및 공원 등을 조성하고
 - 태양열난방(평양), 메탄가스연료(황주군)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난방·연료설비를 설치하고 있음.

□ 지역별 특성화 도시 건설

- 도시별로 관광, 문화, 체육 등 특화도시를 개발하고 있음.
 - 항구 문화·휴양도시(원산시), 국경관문도시(신의주), 백두산 지구 체육촌(삼지연), 민속도시(사리원) 등
 - ※ '혁명의 수도를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'(평양), '수도의 관문도시'(사리원시), '국경관문도시'(신의주)
 - 새로 정비된 도시를 '선군시대의 금수강산', '사회주의 무릉도원' 등으로 선전하며
 - 해당 특성에 맞는 설비와 아울러 숙소, 식당가, 상업거리, 박물관, 문화회관 등 먹거리·볼거리를 조성하고 있음.

4. 분석

- 북한이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도시정비 및 주택건설 사업을 전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실질 성과는 작년에 비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 - 지난해에는 인민생활공채 판매자금을 도시정비분야 등에 집중 투입할 수 있었으나,
 - 올해는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 및 공장·기업소 개건 현대화에 주력하면서, 주택 건설비용 및 자재조달이 미흡했던 것이 부진의 원인으로 보임.
 - ※ 지난해는 북한 전역에 최소 3만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, 건설업 성장률(2.1%)이 경제성장률(1.8%)를 약간 상회
- 그러나, 대외이미지 개선, 주민생활 향상 및 침체 분위기 쇄신, 유희노동력 활용 차원에서 도시개건·현대화 사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.